

## 중국 무속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 귀주성 덕강현 나제를 중심으로 -

김은정<sup>+</sup> · 김초영<sup>\*</sup> · 장국강<sup>\*\*</sup>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sup>+</sup>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sup>\*</sup> · 대련외국어대학 교수<sup>\*\*</sup>

### A Study on Symbolism of Shaman's Costume in China - Focusing on *Naje*, *Deokgang-hyun*, *Guiju-seong* -

Eun-Jung Kim<sup>+</sup> · Cho-Young Kim<sup>\*</sup> · Quo Qiang Zhang<sup>\*\*</sup>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sup>+</sup>

Doctor's Courses,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sup>\*</sup>

Prof., Korean Dept. Dal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sup>\*\*</sup>

(2015. 2. 2. 접수; 2015. 3. 19. 수정; 2015. 3. 24. 채택)

### Abstract

This study inferred the symbolism of shaman's costume in China from shamanism and types of shaman's costume in Naje, Deokgang-hyun, Guiju-seong, China through field survey. Shamanism in China has complicated aspects due to negotiations with other culture for a long time while maintaining its own consistency based on ethnicity. Symbolism of shaman's costume in Naje, Guiju-seong, China is observed as follows.

First, the shaman's costume in China appears differently from every Jangcha in relation to the position of god appearing in Jangcha when Tolosa takes the position of god as a symbol of sex and god. In Naje of China, the most important shaman's costume indicating the position of god has a unique mask for every deity. It communicates that Tolosa wearing a costume appropriate for the god of wine shall become the god in that Jangcha.

Second, the shaman's costume in China has something to do with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of Taoism as a symbol of shamanism visio of the universe and system of reason. Most of Tolosas hosting Naje are men but dress up as women by wearing Nagun looking like a skirt. Nagun is usually red, the color of Yang, which symbolizes that by wearing such costume that takes color of Yang, Tolosa expels an ominous thing by balancing yin and yang and taking god's strong power.

Third, Tolosa takes an eight-breadth Nagun, as a symbol of people. An eight-breadth worn by Tolosa in Naje strengthens the spirit of union and fight of the Tujia nationality who live in Deokgang-hyun, Guiju-seong through folk legends. In this course, a symbolic meaning of the national spirit has been provided on an eight-breadth Nagun, a shaman's costume.

**Key Words:** Shaman's costume(무속복식), Naje(나제), Symbolism(상징), Traditional costume(전통복식), Tolosa(법사)

## I. 서론

현재 중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나제 무속의례

---

Corresponding author ; Eun-Jung Kim

Tel. +82-62-530-1347, Fax..+82-62-530-1349

E-mail : kimej0234@hanmail.net

는 일반적으로 제의적인 성격의 무속의례로서 나제(儺祭)라고 하며 제의 사이에서 연행하는 연극적인 성격의 놀이를 나희(儺戲)라고 한다. 나제를 행하는 무격은 보통 스승으로부터 기예를 배워서 사제권을 받는다. 지역에 따라서 ‘단공(端公)’, ‘사공(師公)’, ‘노사(老師)’, ‘토로사(土老師)’, ‘동자(童子)’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8명 안팎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을 이루는데, 이를 ‘단반(壇班)’, ‘나반(儺班)’, ‘나단(儺壇)’ 등으로 부른다. 나제는 보통 초청을 받아서 행해지는데 연출 동기에 따라서 주로 ‘충나(沖儺)’와 ‘환원(還愿)’으로 나눌 수 있다. ‘충나’는 사기를 누르고 물리치는 구나(驅儺) 활동을 위주로 연행하는 것이고, ‘환원’은 신에게 빌었던 일이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나제를 연행하는 것이다(張國強, 2011).

중국의 나제(儺祭)는 원래 역귀를 물리치는 무술적(巫術的) 행위로서 기원전 16세기의 상대(商代)에 이미 궁정으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것이다. 송대(宋代) 이후 나제는 정치중심의 이동과 더불어 중국 남방으로 옮겨가서 남방의 민간 무속과 결합되었다. 지금은 주로 중국 장강(長江) 이남의 안후이(安徽),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꾸이저우(貴州), 광시(廣西), 윈난(雲南) 등 성(省)의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나제 활동을 찾아 볼 수 있다(陶立璠, 1994).

조사가 이루어진 귀주성의 덕강현은 중국 서남쪽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덕강현 인구는 55만이고 3분의 2가 토가족, 묘족, 동족 등 소수민족들이다. 덕강현 나희는 2005년에 중국의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목록으로 지정되었다.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나제는 정부의 허락 없이 참관할 수가 없어 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여 귀주대학 나문화연구소, 대련대학 장국강교수의 협조와 안내로 현지답사를 통해 2014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루어졌다.

중국 귀주성 덕강현(德江縣) 지역에서 나제를 행하는 무격들은 전부 남자들이고 보통 ‘토로사’, 또는 ‘나의사’라고 불리는데 연행은 국가급 전승자인 안영백팀이 나제를 연행하였다. 안영백 토로사는 금년 50세가 되었고 그와 함께 연

행하는 팀은 5명이 진행하였다. 나제가 연출되는 장소는 덕강현 온평진 온평사구 봉가조 마을이다. 이 마을은 65가구, 278명의 주민이 있는데 대부분 토가족들이다. 이러한 나제가 귀주성 덕강현에서 연행되었던 사유는 아이가 병환과 사고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날 집주인의 두 자녀 중 둘째인 9살 남자아들을 위한 나제가 연행되었다. 민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살이 많다고 살을 풀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습속은 일종의 통과의례로써 저승 염라왕 궁전에서 12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진행하는 의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현지조사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나제 속에 착용된 무속 복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무속은 지역 공동체의 매개로 민족문화의 기층을 형성해 온 지역민들의 애환과 염원이 응축된 삶의 역사로 그 생생한 무속의 현장에서 무속 복식은 당대인의 생활상과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무속복식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이나 인류학 등 타학문 분야보다 매우 미진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연구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무속복식을 파악하고 무녀가 착용하는 무속복식 종류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무속복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무속복식의 고유성과 착용양상에 따른 무속복식의 형태와 종류(김은정, 2002)를 분석하거나 무속복식의 역할이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내연구(양미경, 1997)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시베리아 소수민족과 한국 무속복식을 비교한 연구(이자연, 2005)는 외국의 무속복식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주목되었다. 한국 무속복식을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계

통으로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보로 보았다. 그러나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 무속복식과의 비교연구는 한국 무속의 주술 상황적 성격이나 역사적 기원의 문제해명에 대한 논쟁점에 대해 고찰하지 못하고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동질성을 갖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제의절차 및 굿거리에 대한 배경없이 복식을 단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일반적으로 전통복식을 착용하는 무속복식은 민속사상을 주축으로 하여 불교, 도교, 실학, 토속신앙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을 내포한 상징성은 음양오행사상에 따라 백, 청, 흑, 적, 황색으로 색채에 뜻을 두었고, 문양에 인간의 염원, 종교와 사상 등을 형상화하여 자연문과 상상(想像)문과 함께 사용하므로 자연과 어우러지게 하거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상상한 문양이나 글자를 의복에 표현하였다(김정자, 2004).

이에 중국 나제에서 토로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무속복식의 상징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무속의 특징, 전통복식의 특성의 일면을 밝히고자 한다. 그렇기 위해서 현장론에서 출발하여 나제의 제의절차 및 연희과정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중국 무속복식의 종류와 형태를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상징성을 고찰할 것이다.

## 2. 중국나제의 연희과정

조사가 이루어진 중국 나제는 2014년 11월 25일 12:30부터 26일 11:30까지 1박2일 간에 하였다. 진행과정을 16개의 장차로 구성하여 굿이 시작되기 전에 굿이 이루어진 장소 앞 벽면에 붙어 있었으나 실제 연희는 13개의 장차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굿에서는 개별 절차를 ‘거리’라고 하고, 중국 나희(儺戲)에서는 ‘장차(場次)’라는 용어를 쓴다(김정호, 2012).

장차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단예청-전문진조-탑교회병-탕백-포나하망-봉단방병-타개도원삼동-타개산-출토지-출신봉구원-상도영생-과마단선번원해결-유나송정송신상마로 구성되었다. 장차별 구성에 따른 복식의 종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1) 개단예청

신, 조상, 역대 스승에게 나제를 행하는 사유를 알리고 신들이 제단에 내리는 것을 청한다. 토로사가 착용하는 무속복식은 두과, 오로관, 마괘, 양면 비갑, 바지, 나군을 입었다.

### 2) 전문진조

신들에게 문서를 보내고 부엌에 가서 조왕신에 제를 올린다. 토로사가 착용하는 무속복식은 두과, 오로관, 마괘, 바지, 나군을 입었다.

### 3) 탑교회병

신들이 순조롭게 도착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 토로사가 착용하는 무속복식은 두과, 오로관, 마괘, 양면 비갑, 바지, 나군을 입었다.

### 4) 탕백

희생물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씻어 신에 바친다. 토로사가 착용하는 무속복식은 두과, 오로관, 마괘, 바지, 나군을 입었다.

### 5) 포나하망

천라지망(그물)을 설치해서 사악한 귀신을 잡아서 제거한다. 토로사가 착용하는 무속복식은 두과, 오로관, 마괘, 양면 비갑, 바지, 나군을 입었다.

### 6) 봉단방병

신의 병사들을 풀어서 사악한 귀신과 싸우게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장차에서 수탉이 막대기 위에 세우는 절기도 보여 준다. 토로사가 착용한 무속복식은 두과, 마괘, 바지를 입었다.

### 7) 타개도원삼동

탈들을 보관하는 도원삼동의 문을 열고 탈이 대표하는 인물들을 청하는 내용으로, 연극적인 내용이 많은 장차이다. 문을 여는 인물은 첨각장군과 당씨태과이고 탈을 쓰고 나오는 신으로

뇌석장, 토지신, 화상 등이 있다. 토로사가 착용한 무속복식은 두파, 오로관, 선량의 모, 첨각장군의 모·건, 마괘, 선량의 오, 호의, 바지, 나군, 전군, 양면 비갑, 흑색 비갑을 입었다.

#### 8) 타개산

개산망장이라는 장군신이 탈을 쓰고 나와서 위용과 무술을 보여주고 재미있게 놀면서 복을 빌어 준다. 토로사가 착용한 무속복식은 두파, 마괘, 호의, 바지, 전군, 양면 비갑을 입었다.

#### 9) 출토지

인병토지가 탈을 쓰고 나와서 재미있게 놀고 복을 빌어 준다. 토로사가 착용한 무속복식은 두파, 마괘, 바지, 나군, 양면 비갑을 입었다.

#### 10) 출선봉구원

선봉소저라는 신이 탈을 쓰고 나와서 집주인이 빌었던 소원과 약속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다. 토로사가 착용한 무속복식은 두파, 선봉소저의 오, 바지, 나군을 입었다.

#### 11) 상도영생

토로사 1명이 아이를 업고 칼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온다. 토로사가 착용한 무속복식은 두파, 오로관, 마괘, 바지, 나군을 입었다.

#### 12) 과마단선번원해결

토로사가 아이의 살을 풀어주는 장치이다. 끈에 있는 12개의 매듭을 풀고 밥 그릇 12개를 깨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다. 토로사가 착용한 무속복식은 두파, 오로관, 마괘, 바지, 나군, 양면 비갑을 입었다.

#### 13) 유나송정송신상마

청해 온 신들을 돌려보내고 제단을 한다. 토로사가 착용한 무속복식은 마괘, 바지를 입었다.

## 2. 나제에서 착용하는 복식의 종류

나제에서 착용되는 무속복식은 대체로 일상복인 평복차림, 신복차림으로 나누어진다. 토로사의 역할에 따른 무속복식의 종류를 분류하면, 나제에서 무격이 사제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 옷차림은 일상복인 평복차림으로 나타나며, 신의 입장을 취할 경우 옷차림은 신복차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장차에 따른 무속 복식의 종류를 정리하면 제시한 <표 1>과 같다.

## III. 나제 연행과정에서 무속 복식의 형태

중국 나제에서 착용되는 무속 복식은 우선 얼굴에 쓰는 가면이 있으며, 머리에 쓰는 두파와 오로관이 있고, 무복은 비갑과 나군이 있었다.

토로사는 나제를 연행할 때 거리를 시작할 때는 무복을 입는데 착용하는 순서는 하의를 먼저 입고 상의를 입고 마지막에 관을 쓴다. 반대로 장차가 끝나면 관을 먼저 벗고 상의를 벗고 하의를 벗는다.

### 1. 두식

#### 1) 두파(頭帔)

두파(頭帔)는 가면을 착용하기 전에 머리와 얼굴의 일부를 감싸는 천으로, 민간에서는 포태포(包胎布)라고 한다. 보통은 3m 길이에 백색을 많이 사용하지만 흑색과 적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를 착용함으로써 범속한 출신을 감싸고 신상(神像)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가면 착용자의 얼굴이 가면으로 인해 찰과상을 입지 않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염흔, 2013). 덕강현 나제에서 착용하는 두파는 길이 약 1.5m에 황색 삼베로 되어있으며, 오랜 사용으로 인해 마섬유 특유의 뻣뻣한 촉감은 없었다. 두파를 이마에 두른 후 오로관을 착용하여 오로관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

<표 1> 장차에 따른 무속 복식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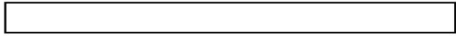
장차	개단예칭	전문진조	담교회병	탕백	포나하망		봉단방병
복식							
복식 종류	두과, 오로관, 마괘, 비갑, 바지, 나군	두과, 오로관, 마괘, 바지, 나군	두과, 오로관, 마괘, 비갑, 바지, 나군	두과, 오로관, 마괘, 바지, 나군	두과, 오로관, 마괘, 비갑, 바지, 나군		두과, 오로관, 마괘, 비갑, 바지, 나군
장차	타개도원삼동						
복식							
복식 종류	두과, 오로관, 마괘, 비갑, 바지, 나군	모, 건, 마괘, 호의, 바지, 전갑	모, 오, 바지, 나군	두과, 마괘, 홍 피풍, 바지	두과, 마괘, 비갑, 바지, 나군	두과, 마괘, 비갑, 바지, 나군	두과, 마괘, 비갑, 바지, 나군
장차	타개산	출토지	선봉구원	상도영생	과마단선변원해결		유나송정송신상마
복식							
복식 종류	두과, 마괘, 호의, 바지, 전갑	두과, 마괘, 비갑, 바지, 나군	두과, 오, 바지, 나군	두과, 오로관, 마괘, 바지, 나군	두과, 오로관, 마괘, 비갑, 바지, 나군		마괘, 바지

할로 사용되었다. 나무로 된 가면과 착용자의 얼굴에 마찰을 줄어줌으로써 착용자의 얼굴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으며, 가면 뒤로 보일 수 있는 착용자, 즉 토로사의 얼굴을 감추어 줌으로써 그를 더욱 신격화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 2) 오로관(五老冠)

오로관(五老冠)은 머리에 둘러매어 착용한다. 형태는 연판형(蓮瓣形) 5개 조각 위에 오방오로(五方五老)를 상징하는 신상이 그려져 있다. 관의 양쪽에는 검(劍)모양의 기다란 띠가 달려있

<표 2> 두과의 착용모습과 도식화

복식	착용모습	도식화
		

<표 3> 오로관의 착용모습과 도식화

복식	착용모습	도식화
		

으며, 그 위에는 신상의 도안이나 태을구고천존(太乙救苦天尊)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百度百科, 2014). 오방오로는 오방오제(五方五帝) 또는 원시오로(元始五老)라고도 하며, 각 방위를 다스리는 도교신들로, 그 중 하나는 원시천왕(元始天王)이다. 방위별로 동은 청제, 남은 적제, 중앙은 황제, 서는 백제, 북은 흑제라고 한다(百度百科, 2014). 덕강현 나제에서 착용하고 있는 오로관은 무게가 가벼운 금속 재질의 ‘모(矛)’ 모양 판이 5장 연결되어 있으며, 판 가장자리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판을 장식함과 동시에 판과 판을 끈으로 연결하여 고정하였다. 판과 판 이음새에는 얇은 금색의 광택 있는 금속을 일정한 형상으로 오려 한 방향만 고정하였는데 그 형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각각의 판 중앙에는 아크릴물감으로 오로를 그렸다. 오로관을 착용할 때는 먼저 이마에 두과를 두른 후 오로관을 그 위에 착용하여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오로관 뒤에 양쪽으로 꽃을 상징하는 지전(紙錢)을 1장씩 꽂는다. 이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3) 선랑의 모(帽)

선랑의 모(帽)는 직사각형의 천을 이마에 두르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정수리부분은 트여 있다. 소재는 열은 주황색 바탕에 다양한 문양이 그려진 자카드(jacquard)소재이며, 이러한 소재의 사용은 색상이나 문양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모의 가장 큰 특징은 뒤쪽에 달린 장식인데 형태를 살펴보면 흑색과 미색, 분홍색의 장원형(長圓形) 타래 위에 망사가 덧씌워져 있고, 그 위에 홍색의 막대형 실타래가 달려있다. 홍색의 타래는 은색 막대가 가로로 꽂혀 있어 마치 가계(加髻) 위에 비녀를 꽂은 모양과 비슷하다. 이러한 형태를 보아 선랑의 모를 포두(包頭)나 미륵(眉勒)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포두는 가계 아래에 머리를 감싸 고정할 수 있는 머리띠처럼 생긴 것으로 여름에는 흑색 비단, 겨울에는 모피로 이마를 보호하여 액파(額帕) 또는 난액(暖額)이라고도 하였으며(홍나영 외 2인, 2011), 폭은 약 6cm, 길이는 약 12cm 정도 하였다(이정옥 외 3인, 2000). 미륵은 차미륵(遮眉勒) 또는 제미(齊眉)라고도 하며, 명대(明代)와 청대

<표 4> 선량의 모 착용모습과 도식화

복식	착용모습	도식화
		

<표 5> 첨각장군의 모와 건 착용모습과 도식화

복식	착용모습	도식화
		

(靑代) 남녀 모두 이마를 장식하는 모의 일종으로 원래는 송대 무관이 비단을 잘라 이마사이에 묶는데서 유래하였다. 소재는 금속, 노끈이나 사(紗), 모피 등이 있었으며, 그 위에 진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李薇, 2010). 선량이 모는 포두나 미륵에 비해 크기와 착용방법, 소재 등이 달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 4) 첨각장군의 모(帽)와 건(巾)

첨각장군의 모(帽)는 정수리를 기준으로 똑같은 크기의 천을 이어 붙여 착용자의 두상에 꼭 맞게 제작한 반구형(半球形)의 모자이다. 이러한 형태는 명대 육합통일모(六合統一帽)와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육합통일모가 6개 조각의 단(緞)이나 사(紗)를 이어 붙임으로써 여섯 방위의 통일에 의미를(李薇, 2010) 두는 것과 달리 첨각장군의 모는 5개 조각의 적색 면직물을 이었으며, 모의 중앙에는 끈을 달아 모와 같은 색상의 직물로 감싼 지름 5cm 크기의 솜방울을 연결하였다. 솜방울은 첨각장군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흔들리며 관객의 시선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첨각장군이 토로사나 다른 신들과 재담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축각(丑角)의 골계적(滑稽的) 인물이기 때문이다. 첨각장군의 건은 모의 위에 덧쓰는 형식으로 모와 같은 직물을 꼬아 한 가닥의 끈을 만든 후 이마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머리에 두른다. 이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 2. 상의

##### 1) 마괘(馬褂)

마괘(馬褂)는 만족(滿族)의 복식으로 청대 남자들이 기마 시 착용하던 허리길이의 보온용 상의이며, 소매의 길이와 폭이 다양하였으며 깃 모양도 대금(對襟)·대금(大襟)·비과금(琵琶襟)이 있다(박춘순, 조우현, 2002). 토로사가 나제의 전반에 걸쳐 기본복식으로 착용한 마괘의 형태를 살펴보면 깃과 여밈은 입령(立領)에 대금(對襟)이며 앞섶에는 깃 아래로 5쌍의 매듭단추가 달려있고, 소매는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는 착수

<표 6> 마개의 착용모습과 도식화

복식	착용모습	도식화
		

(窄袖)이다.

색상은 흑색에 가까운 남색(藍色)이며, 깃의 바깥쪽과 앞섶, 소매 아래쪽에는 청색으로 아자문(亞字紋) 수가 놓여있다. 반면 전통복식과 다르게 앞면 아래쪽에 사각형의 주머니가 달려있으며, 소매가 평면재단이 아닌 입체재단으로 제작된 것은 착용하는 사람에게 활동성과 편이성을 주고자 일부 현대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2) 오(襖)

오(襖)는 군(裙), 반비(半臂)와 함께 원 안정기 이후부터 널리 성행한 옷으로 한족(漢族)의 복식제도와 유목민의 전통이 교류·융합한 결과물이다(홍나영 외 2인, 2011). 형태는 저고리에서 변형되었고, 길이는 저고리보다는 길고 포보다는 짧아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기본적인 구성은 주로 착수에 대금(大襟)이나 대금(對襟)도 있다. 처음 오가 나타난 시기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이나 당대에 크게 유행하여 남녀 구분 없이 착용하였다. 명대와 청대에는 주로 여자들의 평상복으로 치마와 같이 착용하였는데 소설이나 문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李薇, 2010). 선랑이 착용한 오는 깃이 입령에 여밈은 대금(大襟)이며, 소매는 착수이다. 깃과 앞섶에 각각 1쌍, 앞섶에서 옆으로 꺾어지는 모서리에 1쌍, 옆구리에 3쌍의 매듭단추가 달려 총 6쌍의 매듭단추가 달려있다. 몸판의 형태는 가슴에서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사다리꼴로 퍼지고 밑단은 가운데부분이 둥그렇게 내려오며, 양쪽 아래가 트인 사구식(四扣式)이다. 색상은 전체적으로 분홍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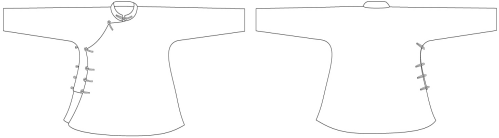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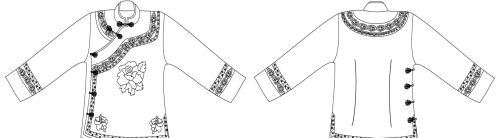
며, 소재는 일반 면 소재로 문양이나 장식은 없다. 선봉소저가 착용한 오는 선랑의 깃과 구성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색상과 장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소매와 몸판의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봉소저의 오 색상과 소재는 광택이 있는 연두색의 폴리에스테르 소재이며, 소재 자체에 무늬는 없으나 깃선을 따라 직금(織金)된 적색 양단과 여러 색의 원사로 직금된 흑색 양단이 이중으로 둘러져 있다. 몸판 앞면에는 장미문양이 자수와 아플리케로 장식되어 있고, 옆선과 밑단, 목선에는 금색 브레이드(braid)가 둘러져 있다. 소매 아랫부분에도 홍색과 황색의 브레이드로 장식되어 있어 선랑의 오에 비해 선봉소저의 오는 전체적으로 화려한 소재와 문양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태는 입령에 대금(大襟), 착수이며 선랑과 같은 위치에 금사로 만들어진 화려한 여섯 쌍의 매듭단추가 달려있다. 몸판은 직사각형이며 밑단 역시 직선이고, 소매와 어깨를 살펴보면 선랑의 오는 소매가 일자형인데 비해 선봉소저의 오는 입체재단으로 서양복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3) 호의(號衣)

호의(號衣)는 사병의 복식으로 호괘(號褂)라고 부르기도 하고 옷에 번호가 있어 호의라고도 한다. 호의는 대부분 배자 형태이므로 겹옷으로 착용하며, 청대에는 복식의 번호와 색상으로 군대 소속을 구별하였다(李薇, 2010). 덕강현 나제에서 호의는 첨각장군과 개산망장이 착용하는 복식으로 이들은 무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7> 오의 착용모습과 도식화

복식	착용모습	도식화
		
		

<표 8> 호의의 착용모습과 도식화

복식	착용모습	도식화
		

깃과 여밈은 곡령(曲領)에 대금(對襟)이며, 소매는 무수(舞袖)이다.

길이는 허리까지 내려오며, 양 옆이 트여있고 대신 거드랑이 밑이 바이어스로 연결되어 있으며, 옆선 중간 두 곳에 실 고리 연결이 있어 앞판과 뒤판을 연결하고 있다. 앞의 여밈 역시 따로 여밈은 없고, 앞자락 중간 두 곳에 안쪽으로 끈이 있어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움직임에 따라 여밈이 벌어지기도 하여 간단하게 고정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복식의 색상은 선명한 홍색이며, 앞판 가슴부분에 백색 천으로 ‘호(号)’자와 ‘명(命)’자를 각각 꿰매어 장군의 복식임을 나타내었으며, 뒤판

중앙에는 ‘왕(王)’을 꿰매었다. 옷의 가장자리는 글자와 같은 백색 천으로 바이어스를 둘렀다. 이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 4) 비갑(比甲)

비갑(比甲)은 13세기 복식으로 앞은 치마가 달렸으나 여밈은 없고, 뒤는 길이가 앞의 곱절에 깃과 소매는 없었으며, 양쪽에 끈은 달아 고정해서 입었다(홍나영 외 2인, 2011). 또한 대금(對襟)으로 여밈이 없고, 실 고리로 양쪽을 고정시키는 것과 앞과 뒷길이의 차이가 나고 뒤가 긴 점은 옆트임의 역할을 하여 기마 시 편리함을 목적으로

<표 9> 비갑의 착용모습과 도식화

복식	착용모습	도식화
		
		

로 제정되었으나 원 안정기를 지나 명대에 들어 형태의 변형을 가져왔다(최해울, 2001).

양면 비갑의 형태를 살펴보면 뒤판은 토로사의 발목까지, 앞판은 허리아래까지 내려오는 전단후장(前短後長)형에 여밈은 대금(對襟)이며, 깃과 소매가 없고 어깨가 전체 폭에 비해 더 넓다. 옆선은 세 곳을 실 고리로 연결하여 앞판과 뒤판을 고정하였으며, 앞여밈은 양쪽 세 곳에 각각 끈을 달아 묶어서 여밀 수 있도록 하였다. 양면 비갑의 특징은 안쪽과 바깥쪽 모두 겹감으로 되어 있어 토로사가 상황에 따라 양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한쪽 면은 모란문양과 봉황문양 있는 홍색의 화려한 소재로 되어 있으며, 앞쪽 여밈과 뒷목부분, 뒷면 아랫단에 금색 브레이드로 장식되어 있다. 반대쪽 면은 전체가 흑색 소재로 되어 있으며, 앞쪽 여밈과 뒷목부분은 반대쪽에 사용된 홍색의 화려한 소재가 덧대져있고, 앞면 아랫단과 앞·뒷면의 옆선부분, 뒷면의 아랫단이 보라색 자수 브레이드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나 나제 전반에 걸쳐 문양과 색상이 화려한 쪽이 겹면으로 착용되며, 흑색이 겹면으로 착용되는 경

우는 토지신 밖에 없다. 흑색 비갑의 길이는 양면 비갑보다 짧아 뒤판은 토로사의 무릎까지 오는 길이이며, 앞판은 허리아래까지 오는 전단후장형이다. 여밈은 대금(對襟)이며, 깃과 소매가 없고 어깨가 전체 폭에 비해 더 넓어 어깨에서 아랫단까지 역사다리꼴의 모양을 이룬다. 옆선은 세 곳에 실고리가 달려 있어 앞판과 뒤판을 연결하였으며, 앞여밈 또한 양면 비갑과 마찬가지로 묶어서 여밀 수 있도록 양쪽 세 곳에 각각 끈을 달았는데 이때 비교적 화려한 끈을 사용하여 양면 비갑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색상은 겹감과 안감 모두 흑색이며, 겹감 가장자리에 백색이 가선장식이 되어 있다. 겹감의 흑색과 백색 가선장식의 경계에는 금색 브레이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앞쪽 여밈 부분에는 은색의 물결무늬 브레이드가 바깥쪽으로 이중 장식되어 있다. 또한 백색 가선위로 앞쪽 여밈 부분 중간부터 뒷목부분을 돌아 금색의 아자문 브레이드가 한 겹 더 장식되어 있어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뒤판 가운데에는 ‘나(難)’자가 프린팅 되어 있다. 흑색 비갑은 토지신과 화상이 1회씩 착용한다. 이를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10> 바지의 착용모습과 도식화

복식	착용모습	도식화
		

3. 하의

1) 바지

바지는 마괘와 함께 토로사가 기본복식으로 착용하는 복식이며, 구성은 현대에 일반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바지와 같다. 허리 밴드에는 벨트 고리가 달려있으며, 허리 밴드 아래 양쪽으로 두 개의 주름이 잡혀있고, 앞에는 지퍼와 단추가 있다.

색상은 마괘와 같은 남색이며, 바지 자락 아래쪽에 청색으로 아자문 수가 놓아져있다. 소재 역시 마괘와 같은 일반적인 면 소재이다. 이를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2) 나군(雛裙)

덕강현 나제에서 착용한 나군(雛裙)은 두 종류가 있으며, 이를 비교해보면 대체적인 형태와 색상은 비슷하나 세부 요소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름이 없는 나군은 홍색의 걸감과 연한 청색의 안감으로 되어 있으며, 허리말기는 흑색이다. 치마부분은 여러 개의 작은 조각을 이어 1개의 큰 폭을 만들고, 2개의 큰 폭을 가운데에서 겹친 형식으로 겹쳐진 부분은 트여있다. 허리말기에는 5개의 긴 띠가 달려있는데 띠의 모양은 봉미군(鳳尾裙)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가장 가운데에는 자색(紫色)의 띠가 1개, 그 바깥쪽으로 백색 띠가 각각 1개, 가장 바깥쪽으로 연두색 띠가 각각 1개씩 총 5개

의 띠가 달려있다. 띠의 길이는 치마단보다 약 5cm정도 길며, 모두 광택이 나는 소재이다. 띠는 치마부분과 분리되어 있어 토로사가 나군을 착용하고 움직이면 화려함을 더해준다. 주름이 없는 나군은 뇌석장이 망토처럼 어깨에 두르기도 하며, 토로사가 상도영생에서 칼나무에 오르기 전에 착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나군의 가장 큰 특징은 치마에 고르게 잡힌 주름인데 이러한 주름은 백접군(百摺裙)이나 마면군(馬面君)에서 그 형태를 찾을 수 있다. 백접군은 백첩군(百疊裙), 백절군(百折裙)이라고도 하며, 치마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에서 백 개 이상의 천 조각을 이은 후 동일한 간격의 주름에 주어 치마허리에서 고정한다. 백접군은 육조(六朝)시대에 시작되어 수(隋)·당대에 무용복으로 활용되었으며, 송대 널리 유행하였다(李薇, 2010). 마면군은 청대 한족 여자의 가장 일반적인 치마로써, 치마의 앞면과 뒷면을 중심으로 양옆에 세로주름을 잡아 준 치마이다(홍나영 외 2인, 2011). 또한 주름이 있는 나군은 홑겹에 허리말기가 백색이며, 허리말기에 달린 띠가 가운데부분에 양쪽으로 백색 띠가 2개, 그 바깥쪽에 흑색 띠가 각각 1개씩 총 4개의 띠가 달려있다. 띠의 형태는 주름이 없는 나군과 같이 봉미군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나 길이는 치마단보다 약 5cm정도 짧다. 주름이 있는 나군은 2벌이 있어 토로사가 나제 전반에 걸쳐 고루 착용하는데, 주름이 없는 것처럼 상의의 형식으로 착용하지는 않고 하의 형식으로만 착용한다. 이를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나군의 착용모습과 도식화

복식	착용모습	도식화
		

이러한 법의는 보통 신의 신분으로 나올 때 머리 장신구와 가면을 같이 조화롭게 입는다. 이처럼 중국에서 나(儺)를 연행할 때 무속인은 중국의 전통의상을 착용하나 소수민족복식이 다양하여 중국의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통복식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쓴다.

#### IV. 나제 복식의 상징성

중국 무격들은 무속복식을 흔히 신복(神服), 법의(法衣)라고 일컫는데 무속 복식의 법술적인 특징 때문에 판단된다. 의례에서 무속복식은 토로사를 신격화하며 토로사를 통해 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 1. 성과 신격의 상징

나제에 있어 첫 부분의 장차는 신을 제단에 불러들이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는 장차이며, 최후 부분의 장차는 제단에 내려 온 신들을 돌려보내는 장차이다. 중앙부의 장차에서 신을 불러들여 가무와 연극으로써 신을 즐겁게 하고, 신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신의 궁전을 지어 주는 제의를 진행한다. 한국 굿과 비슷한 단락으로 진행하나 굿보다 법술적인 제의 내용이 많이 삽입되었다. 이것은 중국 나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제의 각 장차에 있어 토로사의

행위를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즉 청신, 송신, 법술적인 제의에서 토로사가 신과 인간의 중개자인 사제자(司祭者)의 행위와, 중앙부는 신이 나올 때 신의 행동을 연출하는 신의 행위이다. 즉 중국 나제에 있어서 토로사는 사제자의 역할과 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무속복식은 그 장차에 등장하는 사제자나 (산) 토로사가 그 장차에 나온 신이 된다는 의사전달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나제에서 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무속복식으로 신격마다 독특한 가면을 착용하였다. 가면 역시 토로사가 사제자의 신분인가, 아니면 신의 신분인가를 나타내며, 복식과 같이 의사전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제에서 토로사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구별된 무속복식을 착용하였고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차에서는 장차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무속복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2. 무속 우주관과 사유체제의 상징

무속복식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상징한다고 한다. 나제에서 토로사가 머리 위에 쓴 관과 하의로써 입는 나군이 토로사들의 우주관과 사유체계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나제에서 중요한 복식으로 착용되고 있는 오로관은 ‘모(矛)’ 모양의 금속 조각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 조각 위에 도교의 주요 신 5명의 신상이 그려져 있다. 나제에서 토로사가 머리 위에 이 오로관을

쓰는 것은 우주 위에는 도교의 신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일’자는 일궁, 즉 양의 세계를 상징하고 ‘월’자는 월궁, 즉 음의 세계를 상징하는데 도교의 우주관의 표현이라고 한다. 덕강현의 토로사 전경과는 나제 복식 유래에 대해 치마는 삼교왕모(三橋王母)가, 법의는 대법선사(大法先師)가, 두건은 삼청(三清)이 만들었다고 한다(김학주, 1999). 삼교왕모, 대법선사, 삼청은 도교의 신들로 이들이 나제 복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제 복식에 도교의 종교의식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나제를 주관하는 토로사들은 주로 남성이지만 꼭 여장 치마 양식의 나군을 입는다. 나군의 색상은 모두 양의 색상인 적·청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방색 중에서 양기가 왕성한 양의 색으로 역귀를 쫓을 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무복 색상은 강한 양의 색상으로 음양의 조화를 피하며 신의 강한 주력을 취하여 흉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다(김은정, 김용서, 2000).

### 3. 민족의 상징

나제에서 착용되는 무속복식에는 전설이 있었다. 이런 전설은 대부분이 무가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나제의 법기와 법의를 가지고 토가족(土家族) 민간 전설에 참가해서 만든 전설도 있다. 대표적인 전설은 법의의 한 가지인 팔폭나군(八幅羅裙)에 관한 전설이 있다.

당시 토가족은 8개의 부락이 있었는데, 부락마다 수령이 있었다. 8개의 부락은 단독으로 도저히 적에 대적할 수가 없어서, 연합하여 저항하였다. 이에 8개의 부락들이 민주 협상을 통해서 용감하고 지혜를 기지고 있는 우두머리 1명을 선출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여 그 후에 관가는 다시 토가족 지역을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8개의 부락들이 각각 다른 색상 채색 천을 1개 조각씩 내고 같이 장군군(將軍裙)을 만들어 우두머리에게 바쳤다. 우두머리는 이 장군군을 입은 후에 8개의 부락의 병사들을 더욱더 잘 소집하고 훈련시키고 위세를 천하에 떨쳤다. 팔폭나군의 명칭이 바로 여기서 내원되고 지금 토가족 나제에서 없으면 안 되는 법의가 되었다(中國

貴州省 德江縣 民族宗教事務局, 2003). 이러한 토가족들의 역사와 나제가 서로 결합하여 만든 이야기로서 토가족들의 단결정신과 투쟁정신을 나제에 들어가게 하고 나제의 신앙심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복인 나군에 민족정신의 상징적 의미를 부과하였다.

## V. 결 론

중국 무속관련 자료는 문헌에 의존하여 제의 절차 및 굿거리에 대한 배경 없이 현장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중국 귀주성 덕강현 무속복식 연구는 중국무속의 주술 상황적 성격이나 굿거리에 따른 무속 복식 착용에 대해 한국무속과 비교 고찰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중국 귀주성 덕강현 나제의 무속현상 및 복식의 종류를 통해 중국 무속 복식의 상징성을 유추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무속에서 착용하는 무속복식의 고유성 및 문화 전파적 측면을 파악하는 과정의 일부로 동일 한자문화권인 중국 무속과 비교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무속은 오랜 시간 속에서 타문화와의 교섭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민족성을 갖고 나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국 귀주성 나제에서 나타난 무속 복식의 상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신의 상징으로 토로사가 신의 입장을 취할 경우 장차에 등장하는 신의 신분과 연관하여 각 장차마다 무속복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나제에서 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무속복식으로 신격마다 독특한 가면을 갖고 있다. 가면은 토로사가 사제자의 신분인가, 아니면 신의 신분인가를 장차의 주신에 합당한 복식을 입는 토로사가 그 장차에 나온 신이 된다는 의사전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둘째, 무속 우주관과 사유체제의 상징으로 도교의 음양오행사상과 관련이 있다. 나제를 주관하는 토로사들은 주로 남성이지만 꼭 여장 치마 양식의 나군을 입는다. 나군의 색상은 모두 양의 색상인 적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방색 중에서 양기가 왕성한 양의 색으로 역귀를 쫓을

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무복 색상은 강한 양의 색상으로 음양의 조화를 피하며 신의 강한 주력을 취하여 흥한 것을 물리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셋째, 민족의 상징으로 팔폭나군을 착용한다. 나제에서 착용하는 팔폭나군은 민간전설을 통해 귀주성 덕강현에 거주하는 토가족들의 단결정신과 투쟁정신을 나제에 들어가게 하고 나제의 신앙심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복인 팔폭나군에 민족정신의 상징적 의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의 나제가 어떠한 연계성 속에서 중국의 전통복식을 받아들이고 무속복식으로써 계승하였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며, 상호보완적으로 한국 무속복식의 전승양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김은정. (2002). *한국무복변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김용서. (2000). 제석거리 무복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0(3), 5-12.
- 김정자. (2004). 전통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고찰. *한복문화*, 5(4), 7-14.
- 김정호. (2012). 동아시아 무속의례의 이야기 수용 연구 : 굿·나희·가구라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0, 229-264.
- 김혜란. (2013). *조선시대 궁중복식에 나타난 색채 및 상징성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춘순, 조우현. (2002). *중국 소수민족 복식*. 서울: 민속원.
- 양미경. (1997). 한국무복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복식*, 31, 5-16.
- 양미경. (2000). 하위문화맥락에서 본 패션형태의 변화(1).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3, 5-15.
- 염훈. (2013). *한국 중국 일본 가면의 의미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자연. (1997). 무속복식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32, 213-214.
- 이정옥. (2000). *중국복식사*. 서울: 형실출판사.
- 조만호, 정유선. (2010). 中國京劇服裝圖譜의 帔·靠·褶. *중어중문학*, 46, 71-110.
- 최해율. (2001). *몽골 여자 복식의 변천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중국어학회. (1999). *중국의 탈과 탈놀이*. 서울: 신아사.
- 홍나영, 신혜성, 이은진. (2011).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 과주: 교문사.
- 陶立璠. (1994). 중국의 假面문화. *비교민속학*, 11, 407-425.
- 李薇. (2010). *中國傳統服飾圖鑑*. 北京: 東方出版社.
- 張國強. (2011). *한국과 중국의 무속신 비교연구*. 서울: 박문사.
- 中國 貴州省 德江縣 民族宗教事務局. (2003). *儼韻*. 貴陽: 貴州民族出版社.
- 百度百科. (2014. 10. 11). 五方五老. 자료검색일 2015. 1. 29, 자료출처 <http://baike.baidu.com/view/301920.htm>
- 百度百科. (2014. 11. 08). 五老冠. 자료검색일 2015. 1. 28, 자료출처 <http://baike.baidu.com/view/15247117.htm>